

# 그녀가 곧 '알함브라궁전의 추억'

'박규희의 스페인 기타여행'  
15일 서울 예술의전당서 개최



한국에서 클래식 기타는 뒷전이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어쿠스틱·일렉 기타에 가려졌고, 클래식음악계에서는 낯설어했다. 이병우(54)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지만 좀 더 힘을 실을 우군이 필요했다. 5년 전부터 변화의 기운이 감지됐다. 키 150cm 남짓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커 보이는 박규희(34)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관심이 차차 늘었다.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일도 생겼다. 꿈을 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박규희의 손은 작지만, 기타 줄 위를 마치 그녀의 물밑 다리처럼 움직이는 손가락들을 보고 있노라면 기우로 확인된다.

최근 종방한 현빈(37)·박신혜(29) 주연의 tvN 드라마가 이 곡의 제목을 드라마 제목으로 삼았는데 곡도 주제처럼 흘러 나왔다. 그러다가 배경인 가상현실 게임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게임이 시작될 때마다 이 곡이 흘러나왔다. 극 중에서 박신혜가 기타로 직접 이 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사랑을 받는 일본에서 '기타 요정'으로 통하는 박규희가 현지에서 이름을 알린 것도 이 곡 때문이다. 그녀가 이 곡을 연주하는 모습이 NHK 전파를 탄 이후 현지에서 이 곡은 박규희를 대표하는 곡이었다. 그녀의 연주는 가상 속이 아닌 진짜 현실에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곡을 제대로 연주하는 건 이번 콘서트가 처음이다. "수없이 연주한 곡인데 한국에서는 처음 들려드리는 곡이라 더 떨려요"라며 웃었다.

박규희는 알베니즈의 카탈루냐 기상곡, 토로바의 소나타나 등 다른 스페인 클래식 기타 명곡도 들려준다. 플루티스트 최나경(36)과 함께 피아졸라의 히스토리 오브 탱고를 플루트와 기타 듀오로도 선보인다.

스페인 박규희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나이다. 2016년 상반기 6개월을 스페인 남부 알리칸테 음악원에서 '마스터 과정'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 위로를 받았다.

알리칸테는 1970~80년대 기타계를 호령한 지역이다. 음악원에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세고비아의 수제자 호세 토마스 등이 선생으로 있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데이비드 러셀은 1976년 '알리칸테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마스터 과정'은 알리칸테 음악원이 옛 명성을 되찾고자 개설한 코스로 세계에서 기타 유망주로 꼽히는 이들을 오디션을 통해 뽑고 수업을 받게끔 한다. 박규희는 47로,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13명과 함께 생활하며 배웠다. 이 코스를 밟기 전까지 잇따르는 연주로 배터리가 나간 듯, 살아가던 그녀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배움이 충전이 됐다.

"각 분야의 대가들이 오셔서 2주간 가르침을 주세요. 지휘법, 뇌신경학 등을 간단히 배웠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의 뇌가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이래요. 그래서 연습할 때 20분 집중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실 때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교수가 떠날 때마다 여는 환송 파티는 또 다른 음악회였다. "한국, 중국, 일본, 남아메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 나라의 음식을 해와 다 같이 나눠 먹고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서 같이 연주를 하며 즐거웠죠"

박규희는 연주를 마치고 4월 다시 알리칸테로 간다. 이번에는 석사 학위 공부를 위해서다. 70장을 써야 하는 논문 주제는 고민 중이다. 최근 박규희에게 다른 목표가 생겼다. '마스터 클래스' 등을 통해 후배를 잘 가르치기로 이를 닦던 그녀에게 제자가 생겼는데 그녀를 잘 가르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일본에서 유망주 통하는 에리카(16)다. 에리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그녀의 레슨을 받은 뒤 일취월장, 콩쿠르 우승을 휩쓸고 있다. 자신이 속한 나이라는 물론 대학생까지 통틀어서도 전체 장원을 차지하기도 일수다.

"제가 주는 대로 아낌없이 다 받아들여나, 놀라워요. 정말 성정이 기대되는 친구예요. 제가 스페인에서 공부하는 동안 믿을 수 있는 후배에게 레슨을 부탁해놓았어요. 그 사이 더 성장할 겁니다"

박규희는 프랑스 명기타 제작자 다니엘 프리드리히가 2009년 제작한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악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만든다. "연주할 때마다 세포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기타는 도구를 통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연주를 하는 악기잖아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이제 몸의 일부가 됐어요"

/뉴시스

## 작년 한일 양국 방문객 수 1000만명 돌파... 사상최다

지난해 한일 양국간 방문객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7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밝힌 잠정 통계에서 작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약 753만 9000명으로 사상최다 기록을 세웠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방문객 수도 같은 기간 27.6% 증가해 약 294만 8500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지난해 1년동안 한일 양국 방문객 수를 합하면 약 1048만 7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 수는 한국을 찾은 일본인 방문객 수의 약 2.5배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JNTO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

중국 인구가 한국 인구의 약 28배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을 찾은 해외 방문객 중 한국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방문지 3위를 유지하고 있다. 1위는 미국이며, 2위는 중국이다.

/뉴시스

## 남원시민 도예대학,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

새로운 도예기법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남원시민도예대학이 2019년 상반기 기초과정 수강생 15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남원시민은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상반기(40기) 기초(야간), 실기(야간), 응용과정(주·야간) 4개반으로 주2회, 1일 3시간씩 16주(3.4~6.21)이며, 도예전문가 초청 특별강의도 2차례 운영해 새로운 도예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유약작업, 작품소성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유료 도예체험과정도 운영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민도예대학은 심수관의 혼을 담아 남원도예문화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배출해내는 산실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수궁 화재대응 훈련.

## 2월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 '잊지말자 승례문 화재'

문화재청이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해 문화재 화재 대응훈련, 안전점검, 골칫기 공모전 시상식,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서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해 문화재 대응 훈련을 한다. 소방서와 경찰서, 문화재 관계자 등이 신속하게 대응해 실제처럼 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종로소방서, 서울119특수구조단, 서울지방경찰청 713 의경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문화재지킴이 회원 200여명도 함께한다.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화재신고, 관람객 대피, 동산문화재 긴급이동, 자체 초동진화, 부상자 후송, 소방차 출동 화재진압 훈련을 단계별로 해보면서 실전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훈련 후에는 관람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문화재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 교육을 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립 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지난해 12월 초·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중한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를 주제로 벌인 문화재 사랑 골칫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린다. 응모작 169편 중 서울 온수초등학교 황찬우를 비롯한 11명의 작품을 선정했

다. 평소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관계기관, 민간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유공 포상도 한다.

2월 한 달 간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등 전국 9곳의 중요문화재 현장에서 재난대응 훈련도 일제히 시행한다. 현장별 상황에 맞춰 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훈련을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재난피해 예방 차원에서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문화재 현장 2010개소에서 문화재 분야 안전점검도 한다. 소방·문화재 전문가가 문화재 방재시설 가동성, 비상연락망 정비현황 등 비상사태 대응태세를 종합점검한다.

대규모 방재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경비인력이 상주하기 어려운 '나홀로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침입감시 센서, 지능형 CCTV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문화재청은 2008년 승례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문화재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자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